

##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현황과 특성 : 이론적 논의와 실태 분석\*

안영진\*\* · 최병두\*\*\*

**요약:** 최근 세계적으로 유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학생의 주요 송출국의 하나였으며, 근래에는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입유학' 혹은 '유치유학'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전환적 상황을 맞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 인구이동과 이에 따른 다문화공간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유학생 이주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주요 연구 동향을 개관하고, 현재 파악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추이와 실태를 분석하고 그 특성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주요어:** 한국, 유학생, 국제적 이동, 대학의 국제화

### 1. 서론

2005년 현재 전 세계의 유학생수는 대략 27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OECD, 2007b). 1950년에 10만 여명에 불과하였던 유학생수가 지난 50여 년간 약 27배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유학의 폭발'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러한 유학생의 급증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유학생의 세계적 송출국의 하나였으며, 따라서 '유출유학'이 주류를 이뤘다. 2007년 현재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국외 한국인 유학생수는 약 22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그렇지만 근래에는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입유학' 혹은 '유치유학'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새로운 전환적 상황을 맞고 있다. 2000년

이래 정부와 각급 대학들이 대학 국제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매진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수가 2007년 4월 현재 49,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1970년 321명, 1980년 1,015명, 1990년 2,237명, 그리고 2000년 6,160명에 지나지 않았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에 비춰보면, 이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지 아닐 수 없다(안영진, 2008).

오늘날 국제적 인구이동에서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으나,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난민이나 불법 이주자 또는 저숙련 이주 노동자들과 달리 유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이나 인도주의적 도전 또는 문화적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은 전자처럼 달갑지 않은 외국 이주자 집단과 정반대로 가능한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4-B00024).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부 국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대량 유입을 규제하거나 그 속도를 조절하기도 했지만(江淵一公, 1990; 江淵一公, 1991a; 江淵一公, 1991b), 최근에는 각종 장학제도의 마련, 입국 조건의 완화, 국제적 졸업 인증제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유학생 유치에 확대하거나 그 획득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杉村美紀, 2007: 179).

이처럼 대량의 국제적인 유학생 이주 또는 이동 흐름은 유출과 유입의 유형과 상관없이 유학생 유치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실 유학생은 출신국의 미래 엘리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향후 국가 간의 경제적·정치적·학술적 교류협력에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유학생의 유치를 통해 유치국은 대외적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개도국으로부터의 유학생의 유치는 개발원조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을 베푸는 것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해외 체류 동안 유학생들은 종종 '문화사절'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표상은 유치국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기보다 유치국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문화를 풍부하게 해주는 요소로 파악된다. 그리고 유학생의 본국으로의 귀환도 과거 유학 국가의 문화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모국에 전파시키고, 따라서 이들 역시 '문화의 가교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외국 유학생들은 많은 국가에서 희구하는 이주자 집단의 하나이며, 이는 동시에 유치국의 국제적 개방의 표현이자 장·단기적으로 경제적·정치적·학술적 이점을 자국에 가져다주는 국제화 또는 세계화의 '모터'로 간주되고 있다(Budke, 2003: 21).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적으로 유학생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와 적응과정에 대한 분석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나와 있는 몇몇 연구들도 (전문)대학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의 수립(박태호 외, 2001; 노종희 외,

2002; 박응수 외, 2004; 이명재 외, 2006)이나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위한 공공가정 설치 및 주거계획에 관한 연구(두경자, 2003; 안선민 외, 2006) 등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고등교육체계가 국경을 넘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유출·입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가 심화·확대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른바 '다문화공간' 또는 '초국적 사회공간'의 형성이 예견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유입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배경과 목적, 이들의 국내로의 이동 후 (대학)사회에의 적응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학교를 이탈하여 주변지역에 노동력으로 고용되는 상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대학과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 긴요한 학술적·정책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렇듯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빈약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이 주제에 대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선행연구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실태와 특성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목차 진행되고 있는 세방화와 유학에 따른 다문화공간의 형성이라는 논구에 최종 목표를 두고서, 여기서는 우선 유학생 이주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동향을 개관하며, 그리고 현재 파악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추이와 실태를 분석하고, 그 주된 배경과 현상의 특성 등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 2. 유학생의 이주 흐름의 성격과 연구동향 : 이론적 검토

### 1) 국제적 유학생 이주흐름의 특성

현재 국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학술차원의 인구 이동은 학생과 교수, 그리고 교직원의 물리적 이동과 함께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가상공간상의 이동과

지 포괄한다(안영진, 2008). 고등교육이 국경 없는 교육체제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많은 국가에서는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사람(학생과 교직원), 프로그램(교육과정), 기관(대학, 교육센터 등) 등의 유형을 취하지만, 이 가운데 역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보편적 형태는 학생들의 이동, 즉 유학생의 국제적 이주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Wheeler, 1925).

지난 수십 년 동안 학생과 교수, 연구자, (행정)직원 등 대학에 소속된 사람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기동적이었다. 이점과 관련하여 물론 절대적 수치가 논거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출현한 때부터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그 어떤 인구집단보다 기동적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중요하고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국제적 이동흐름 혹은 외국 유학이다. 이는 특정 국가의 학생들이 외국 대학으로의 또는 출신국가의 대학에서 외국의 초빙 또는 자매대학으로의 물리적 이동과 결부되어 있으며, 학위나 연수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는 기간 동안에 행해지는 학업 관련 해외체류의 실현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학업을 받는 과정 동안 기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외국' 학생의 지위를 가진 모든 학생들은 유학생으로 간주될 수 있다(Hahn, 2004: 146).

일반적으로 한 국가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은 한편으로 그 유입성격과 배경, 이주패턴, 그리고 적응 및 정착과정 등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 이들의 체류목적이나 기간, 향후 본국으로의 귀환 여부 등에서 서로 상이하며, 법적 지위에서도 적잖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이미 지적인 것처럼 그 어떤 인구집단보다 기동적이며, 또한 이들의 국제적 이동과 이주를 통한 출발지 국가와 목적지 국가에 공히 미치는 다양하고 막대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이동행태는 여타 집단보다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aláz et al., 2004: 217-221). 또한 유학은 체류목적에서 비취업인 교육 및 훈련을 전제로 하며, 체류기간에 있어서도 관평

목적의 일시적 체류보다는 길지만 노동과 결혼 목적의 장기간 또는 영구적 체류보다는 짧은 중·단기적 특성이 뚜렷하다. 더군다나 외국 대학에서의 학업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유학은 출발지 국가에서의 유학의 결정 및 그 배경과 함께 목적국가에서의 적응 및 정착과정의 구체적 내용들, 즉 교육, 주거, 의료보장, 노동시장 등을 모두 포함한 공간적·제도적·사회적 차원에서도 여타 이주 유형과는 구별된다.

오늘날 유학은 일반적으로 지칭될지라도 그 내용적 성격에서 복잡다단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과거와 다른 적잖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안영진, 2008). 우선 부분적으로 유학의 동기와 목적을 규정하는 것이지만, 그 흐름의 주된 방향에서 남에서 북으로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 공업국으로 이뤄진 전통적인 '의존형' 유학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선진국 간에 행해지는 '부가가치형' 유학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현대의 유학이 엘리트 위주 또는 국가가 지원하는 유학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에 걸쳐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고 있는 '대중형' 유학으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유학의 재정적 기반이 과거의 국비나 기관단체 장학금 등에 의존하는 것에서 대학 장학금이나 특히 자비에 바탕을 둔 것으로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해외 유학은 과거의 다소 경직적인 유형에서 벗어나 다양화되고 있다. 교육단계 및 그 종류(전문대생, 대학 학부생, 대학원생 등), 체류 또는 체재의 기간(장기, 중기, 단기 등), 수학의 형태(풀타임, 파트타임, 청강생, 연구생 등), 유학의 목적(학위취득, 어학연수 등) 등에 따른 차이가 크다. 특히 명백한 점은 학부생보다 대학원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동(diploma mobility)과 아울러 한정된 특정 목적의 유학, 즉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동(credit mobility)과 기타 개인적 동기의 자발적 이동(voluntary moves)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HEFCE, 2004: 11). 셋째, 유학생의 개인적 속성, 예를 들어 연령과 성별, 기혼·미혼,

그리고 단신·가족동반 등에 따라 그 실태가 실로 다양하고 분화양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적지 국가에서의 유학생의 적응양상도 유학의 다양한 구성요소의 조합에 따라 대단히 차별적이며, 이에 대한 대학과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대응도 복잡 다단해지고 있다(江淵一公, 1989a: 57; 안영진, 2008).

## 2) 연구동향

이미 지적한 것처럼, 지난 수십 년간 세계적으로 유학생의 이동 및 이주흐름은 가파르게 상승해 왔고 세계 인구이동에서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제한적이었으며, 실증적 분석도 많지 않았다(江淵一公, 1992: 92-4; King, 2002: 98-9; King et al., 2003: 230-2; Hazen et al., 2006: 203-4). 이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유학생의 이동과 지리적 이주패턴에 대한 연구들도 그 동안 개별 연구기관이 장학 프로그램이나 외교 및 경제 정책적 목적과 관련한 특정 계기로 수행된 '수요 지향적' 연구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유학생의 지리적 이동패턴과 적응 등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먼저 국제적인 유학생 이주의 전체 규모나 총량, 그리고 지리적 패턴 등은 오랫동안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한 통계조사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알려져 왔으나, 그 구체적인 배경과 이동패턴, 공간적 특성에 관해서는 자세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UNESCO, 1998). 물론 국제적인 유학생의 유출·입의 특성과 동기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 일부 선진국들에서 수행되었지만, 여전히 빈약한 실정이며, 특히 최근의 동향과 종합적인 실태에 대한 조명은 긴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적인 유학생의 교환 네트워크를 세계체제론에 입각하여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국가들 간의 경제적 관계와 그 변화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Chen et al., 2000)는 오히려 보기 드문 시도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늘날 관찰되고 있는 세계적인 유학생 흐름의 배경과 동인을 세계화의 맥락에서 조명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경제세계화에 따른 숙련된 고급기술 인력의 유치 및 이주 확대(skilled migration approach), 고등교육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의 하나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각국의 요구(revenue-generating approach), 주로 신흥 경제국들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단기간 내에 축적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수용력 확대 전략(capacity-building approach), 그리고 국제적 상호이해(mutual understanding approach) 등 네 가지 서로 다른, 그렇지만 결코 배타적이지 않은 배경 조건에 입각하여 개념화한 설명도 주목된다(OECD, 2004: 4-5). 게다가 유학생의 흐름은 최근에 관찰되기 시작한 '청년층의 이동문화'의 관점에서 파악되기도 한다. 외국으로의 유학은 전통적인 경제적 이동 동기, 곧 일자리를 찾거나 보다 높은 소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보다 젊은 날에 경험을 쌓는다는 목적에 한층 더 좌우된다는 것이다. 다소 추상적이긴 하나 젊고 포스트모던적 개인들의 이른바 'do-it-yourself'의 관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논점이다(HEFCE, 2004: 49). 향후 유학생의 국제적 이동패턴과 이주흐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설명은 이러한 논리를 원용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적으로 대학생의 국제적 이동 및 이주흐름에 관한 연구는 이동패턴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보다는 주로 목적지의 유치국가(host country)와 이들 국가의 새로운 교육체계 등에 대한 적응의 문제에 천착해 왔다. 부분적으로 유학생들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유학생의 귀환이 출발지 국가의 사회발전과 정치경제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나, 그간에 행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주자로서 학생들의 유학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경험과 적응 및 정착과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기존의 유학생에 관한 연구들은 교육학이나 심리학 등의 관점에서 유학생의 적응을 좌우하는 조건 또는 요인들(경제적·재정적 기반,

어학력, 주거, 학습양식, 사회적 적응)과 함께 유학생의 적응을 위한 지원체제에 비상하리만큼 집중해 왔다(江淵一公, 1989a: 62-9). 이와 동시에 유학생의 급격한 확대와 대량 유입이 목적지 국가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혹은 폭넓은 파급효과를 분석한 논저들도 유학생과 관련한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유학생 교육의 비용과 효용의 균등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 최근 유학생 교육에 관한 필요 경비를 산출하여 그 전액을 수익자인 유학생들에게 부담시키는 이른바 'full cost' 론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대학의 교육체제에 대한 유학생의 영향, 즉 교과과정의 개혁, 입학허가 방법, 재정, 사후 관리 등도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江淵一公, 1987: 35-8). 따라서 기존에 살아온 국가를 떠나 외국에서의 학업을 결정함으로써 출발지 국가에서의 초기 이주과정과 목적지 국가에의 입국과 동시에 전개되는 낯선 새로운 사회 환경에의 적응 및 정착과정, 그리고 학업 후 출발국가로의 귀환 또는 유학 국가에서의 잔류과정에 대한 일관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 자연히 유학이라는 이주결정과 이동행위의 전체 과정에서 출발-정착-귀환의 연계와 개별 단계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미진한 형편이다. 동시에 개인 차원에서의 관련 의사결정에 따른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조사도 아직까지 부분적으로만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Alberts et al., 2005; Baláz et al., 2004; King et al., 2003; Hazen et al., 2006; Ziguras et al., 2006). 따라서 유학생의 국가 간 이동 및 이주흐름의 특징, 유형, 그리고 그 동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유학생 이동의 일련의 개별 단계를 연계한 실증적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오늘날 대학생의 국제적 이동은 다양한 동기와 시·공간적 유연성, 세계화의 추동력, 자기실현을 목적으로 한 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이동형태로 파악되기도 하지만(King, 2002),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그 영향력이 심

화되고 있으므로 다른 종족, 다른 문화와 접촉하게 되는 기회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흔히 지적되는 바와 같이 기존의 전통문화와 외래 문화가 혼성된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공간의 형성 가능성이 과거보다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미 언급한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및 정착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과거에는 '동화주의' 입장에서 문자 그대로 'adjustment' 나 'adaptation' 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유학생의 필요를 탐색하거나 유학생의 종족성과 종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y)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종래의 연구를 따르면서도 동화보다는 유학생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주체성의 확립이라는 방향에서 유학생의 태도, 자질, 행동성향 등의 인격적·행동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江淵一公, 1987: 35). 이런 맥락에서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장소의 교체'를 수반하고 그 자체로서 초국적 이주흐름의 하나로 파악되는 유학생의 증가와 이동의 확대는 그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세계화의 맥락 아래 성립한다. 이는 단순히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요인'(push-pull-factor)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자의 출신지와 목적지 간의 순환적 상호관계와 작용, 그리고 네트워크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세계화의 표상은 기존 문화의 변화와 새로운 문화의 성립을 가져오는 학습과 방어와 혼재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혼성은 서로 다른 문화요소와의 연계로 성립하고, 국지적·세계적 행위 지평의 확립 또는 세계적 영향이 국지적으로 학습되는 것에 의해 발생한다. 혼성문화의 성립에 주된 동인은 초국적 이주흐름이며, 목하 관찰되는 유학의 폭발로 일컬어지는 지리적 이동흐름은 이에 주된 구성요소의 하나로 굳건히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국경을 넘어서는 사회적 관계는 이주자 집단의 행위로 구조화되며, 따라서 이른바 '초국적 사회공간'(Transnationaler sozialer Raum)으로 일컬어지는 출발지 국가와 목적지 국가의 상호작용의 공동 맥락 속에서 성립한다(Pries, 1998). 결

국 국제적 유학생의 흐름은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다문화공간(multi-cultural space)의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제적 이동과 국지적 적응과정은 세계적 공간과 지방적 공간의 상호 접합과정, 즉 세방화(glocalization)의 과정을 배경으로 이뤄지며, 따라서 사회공간적 또는 다규모적(multi-scalar) 해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당연히 이와 다른 국제적 이주 또는 이동집단과의 차이성을 함께 고려할 때,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추이와 특성

#### 1) 외국인 유학생의 추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7년 8월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총수는 100만 명으로 넘어섰으며, 전체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2007년 8월 24일 법무부 보도자료). 현재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 유형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들이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최근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이나 각종 기관·단체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외국인 종사자들의 유입과 거주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대학이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치로 국내 체류 유학생수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 유형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실태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조사' 결과<sup>2)</sup>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07년 4월 1일 기준으로 대학을 포함한 국내 각급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수는 총 49,270명으로서 2006년의 32,557명과 비교할 경우에도 1년 사이에 51%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는 1970년 학위과정 위주의 외국인 유학생수가 312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서 비로소 1,000명 수준에 진입하고, 다시 10년 후인 1990년대에 들어서서 다소 등락을 보이긴 하지만 2,000명 수준에 진입한 사실과 비교해 볼 때, 팔목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1990년 2,000명을 넘어섰으나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평균 1,900명 수준을 유지하였고, 1996년 2,143명으로 2,000명 수준을 다시 회복하였다.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는 각각 4,753명, 5,326명, 6,279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었으며, 2001년부터는 1만 명 선을, 2005년부터는 2만 명 선을, 그리고 2006년부터는 3만 명 선을 넘어서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이는 외국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정책(이른바 'Study Korea' 프로젝트 등), 그리고 국내 각급 대학들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범국가로서 발전해 온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학생들의 한국 및 한국 유학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전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학생 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하부구조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일본의 최근 유학생 증가율이 10% 미만인 그친 사실로도 잘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수가 2003년 10만 9,508명에서 2004년 11만 7,302명을 거쳐 2005년 12만 1,812명으로 증가하였을 뿐이다(文部科學省 高等教育局學生支援課, 2007; 有本章外, 2007). 향후 국내 기업들의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지로의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한국 유학에 대한 홍보활동이 확대될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가파른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우리나라의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추이

(단위: 명)

구분	학위과정	어학연수 및 기타연구	합계
1970년	321	-	321
1975년	559	-	559
1980년	1,015	-	1,015
1985년	910	-	910
1990년	2,237	-	2,237
1992년	1,989	-	1,989
1993년	1,908	-	1,908
1994년	1,879	-	1,879
1995년	1,983	-	1,983
1996년	2,143	-	2,143
1997년	4,753	-	4,753
1998년	5,326	-	5,326
1999년	6,279	-	6,279
2000년	3,958	2,202	6,160
2001년	4,336	7,310	11,646
2002년	5,759	-	5,759
2003년	7,982	4,332	12,314
2004년	11,121	5,711	16,832
2005년	15,577	6,949	22,526
2006년	22,624	9,937	32,557
2007년	35,086	14,184	49,270

주 : 1999년까지는 어학연수 등에 대한 조사는 행해지지 않았으며, 2002년에는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음. 20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한국국적 재외동포 제외, 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을 조사하였고, 2004년도부터 원격대학과 각종학교를 포함한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대학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한국국적 및 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을 모두 조사한 수치임. 매년 4월 1일 기준임.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각년도(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보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등.

## 2) 유학생의 출신지역 및 국가

우리나라에 현재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아시아 출신의 유학생수가 45,622 명으로 전체의 92.6%라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출신의 국내 유학생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아시아 출신의 유학생 비율은 2001년 75.2%에서 2003년 84.7%, 2004년 86.5%, 2005년 88.6%, 2006년 89.8%를 거쳐, 2007년 약 93%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증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

계의 많은 국가들에서도 폭넓게 관찰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해외유학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도 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비율이 2004년 91.8%이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2005년 53.8%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아시아 지역 외의 유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북미와 유럽 출신 유학생수가 절대 수치에서는 그동안 증가해 왔으나, 상대적 비중에서는 뚜렷한 하향세를 나타내

표 2.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유럽	합계
2000년	4,698(76.3)	78(0.9)	62(1.3)	664(12.8)	206(1.8)	452(8.1)	11,646(100.0)
2001년	8,755(75.2)	100(0.9)	156(1.3)	1,488(12.8)	209(1.8)	938(8.1)	11,646(100.0)
2003년	10,436(84.7)	112(0.9)	128(1.0)	723(6.0)	127(1.0)	788(6.4)	12,314(100.0)
2004년	14,563(86.5)	174(1.0)	139(0.8)	925(5.5)	197(1.2)	834(5.0)	16,832(100.0)
2005년	19,969(88.6)	184(0.8)	145(0.6)	1,105(4.9)	209(0.9)	914(4.1)	22,526(100.0)
2006년	29,227(89.8)	211(0.6)	125(0.4)	1,717(5.3)	200(0.6)	1,077(3.3)	32,557(100.0)
2007년	45,622(92.6)	291(0.6)	142(0.3)	1,692(3.4)	240(0.5)	1,283(2.6)	49,270(100.0)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각년도(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함.

고 있다.

다음으로 이상의 출신지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 국가별로 유학생수를 검토해 보면, 먼저 유학생 출신 국가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에 약 110개 국가의 유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찾았다면, 2007년에는 이 수치가 30여 개국이 추가된 약 140개 국가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적어도 외국인 유학생 출신국가에서는 확대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개별 국가별 유학생수를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중국 출신 국내 유학생수가 33,650명으로 전체의 6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그 동안의 가파른 증가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 출신의 유학생수가 2001년 3,221명(전체의 27.7%)에 머무른 점을 상기한다면, 다른 나라와의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에 여타 국가들의 유학생 비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입 유학생의 출신지역과 출신국가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 및 국가로의 편중현상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이 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되지만, 유학생의 국제적 이동흐름에 정책적 요인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덧붙여 지리적 근접성이나 역사·문화적 동질성과 같은 요인들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분명한 점은

국내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출신국가들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다는 사실이다.

### 3) 유학생의 주요 특성

이러한 국내 체류 유학생의 현황 특성을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기 위하여 유학생의 학위과정, 전공분야, 그리고 유학 형태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학위과정을 개관해 보면, 2007년 4월 기준으로 대학과 대학원 등의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수가 32,056명으로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어학연수 등 대학 부설 연수기관에 등록한 학생수가 17,214명으로서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전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학위과정 유학생수가 2001년 4,336명(37.2%)에서 2003년 7,981명(64.8%), 2004년 11,121명(66.1%), 2005년 15,577명(69.2%)을 거쳐, 2006년 22,624명(69.5%)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입유학의 패턴이 단기간의 어학연수 중심에서 많은 시간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중심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국외에서 한국어 연수회회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어학연수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의 절대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국내에서



표 3. 외국인 유학생의 주요 국가별 현황 추이

2001년		2004년		2007년	
국명	학생수(%)	국명	학생수(%)	국명	학생수(%)
일본	3,565(30.6)	중국	8,960(53.2)	중국	33,650(68.3)
중국	3,221(27.7)	일본	2,418(14.4)	일본	3,854(7.8)
미국	1,297(11.1)	미국	725(4.3)	베트남	2,242(4.6)
대만	559(4.8)	대만	693(4.1)	미국	1,388(2.8)
러시아	358(3.1)	베트남	458(2.7)	몽골	1,309(2.7)
몽골	201(1.7)	몽골	356(2.1)	대만	1,047(2.1)
캐나다	191(1.6)	러시아	320(1.9)	우즈베키스탄	429(0.9)
베트남	186(1.6)	말레이시아	272(1.6)	러시아	427(0.9)
독일	153(1.3)	캐나다	200(1.2)	말레이시아	425(0.9)
필리핀	126(1.1)	인도	185(1.1)	인도	389(0.8)
호주	125(1.1)	우즈베키스탄	155(0.9)	캐나다	304(0.6)
인도	99(0.9)	독일	129(0.8)	방글라데시	299(0.6)
인도네시아	89(0.8)	네팔	128(0.8)	필리핀	263(0.5)
파키스탄	87(0.7)	인도네시아	124(0.7)	네팔	236(0.5)
프랑스	85(0.7)	필리핀	118(0.7)	파키스탄	234(0.5)
방글라데시	82(0.7)	방글라데시	107(0.6)	인도네시아	232(0.5)
미얀마	70(0.6)	호주	89(0.5)	독일	209(0.4)
태국	66(0.6)	미얀마	87(0.5)	태국	153(0.3)
우즈베키스탄	63(0.5)	태국	67(0.4)	프랑스	149(0.3)
영국	62(0.5)	프랑스	66(0.4)	카자흐스탄	110(0.2)
네팔	52(0.4)	파키스탄	62(0.4)	미얀마	107(0.2)
사우디아라비아	50(0.4)	카자흐스탄	48(0.3)	홍콩	92(0.2)
터키	46(0.4)	뉴질랜드	46(0.3)	캄보디아	90(0.2)
카자흐스탄	45(0.4)	싱가포르	39(0.2)	영국	90(0.2)
말레이시아	42(0.4)	캄보디아	38(0.2)	터키	85(0.2)
아르헨티나	42(0.4)	터키	38(0.2)	호주	84(0.2)
파라과이	42(0.4)	스리랑카	37(0.2)	키르기스스탄	56(0.1)
멕시코	35(0.3)	영국	37(0.2)	뉴질랜드	54(0.1)
스웨덴	33(0.3)	홍콩	36(0.2)	스리랑카	52(0.1)
기타	574(4.9)	기타	794(4.7)	기타	1,211(2.5)
합계	11,646(100.0)	합계	16,832(100.0)	합계	49,270(100.0)

출처 : 표 2의 자료와 동일함.

의 어학연수의 경우 한국어 실력의 향상만을 위한 단기적인 체류에 적잖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 한편으로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대학과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준비하기 위하여, 특히 각급 대학에서 일정 수준의 한국어 구사력을 입학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예비적으로 어

학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어학코스는 학위과정의 입학을 위한 선행과정으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을 이들이 선택하여 학업을 받고 있는 전공 분야로 분석해 보면, 전체

표 4. 외국인 유학생의 과정별 현황 추이

(단위: 명, %)

구분	어학연수	대학(전문대 포함)	대학원	기타	합계
2000년	1,896(30.8)	2,261(36.7)	1,697(27.5)	306(5.0)	6,160(100.0)
2001년	6,072(52.1)	2,149(18.5)	2,187(18.8)	1,238(10.6)	11,646(100.0)
2003년	3,525(28.6)	4,114(33.4)	3,867(31.4)	808(6.6)	12,314(100.0)
2004년	4,520(26.9)	6,641(39.5)	4,480(26.5)	1,191(7.1)	16,832(100.0)
2005년	5,212(23.1)	9,835(43.7)	5,742(25.5)	1,737(7.7)	22,526(100.0)
2006년	7,938(24.4)	15,268(46.9)	7,356(22.6)	1,995(6.1)	32,557(100.0)
2007년	14,184(28.8)	22,171(45.0)	9,885(20.0)	3,030(6.2)	49,270(100.0)

출처: 표 2의 자료와 동일함.

적으로 인문학 및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유학생수가 9,225명(18.7%), 자연과학과 공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수가 20,964명(42.5%), 그리고 예체능 분야를 전공하는 유학생수가 1,867명(3.8%)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분야에 있어서는 자연 및 공학계로의 편중현상이 엿보인다. 물론 이러한 편중은 학부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전문대학의 포함한 대학의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22,171명 가운데 인문사회계가 3,713명, 이공계가 17,077명, 그리고 예체능계가 1,387명으로, 자연과학과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전체의 77%라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상위과정인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전체 외국인 재학생 7,247명 가운데 인문사회계 대학원생이 4,690명, 이공계가 2,117명, 예체능계가 440명으로, 인문사회계의 비중은 29.2%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전체 재학생 2,638명 중 인문사회계, 이공계, 예체능계 학생이 각각 822명, 1,770명, 46명으로, 인문사회계의 비중은 67.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전공분야에 따른 일반적인 패턴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장차 이공계 유학생의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IT와 반도체 분야 등 우리나라의 우수 이공계 분야의 지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이공계 분야의 유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유인 노력이 있

표 5.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분야별 현황 추이

(단위: 명, %)

구분	어학연수	전공 분야				기타	합계
		이공 자연계	인문 사회계	예술 체능계	소계		
2000년	1,896(31.6)	915(15.3)	2,663(44.4)	217(3.6)	3,795(63.3)	306(5.1)	6,196(100.0)
2001년	6,072(52.1)	1,243(10.7)	2,871(24.7)	222(1.9)	4,336(37.3)	1,238(10.6)	11,646(100.0)
2003년	3,525(28.6)	2,768(22.5)	4,848(39.4)	365(2.9)	7,981(64.8)	808(6.6)	12,314(100.0)
2004년	4,520(26.9)	3,449(20.5)	7,162(42.5)	510(3.0)	11,121(66.0)	1,191(7.1)	16,832(100.0)
2005년	5,212(23.1)	4,948(22.0)	9,841(43.7)	788(3.5)	15,577(69.2)	1,737(7.7)	22,526(100.0)
2006년	7,938(24.4)	6,466(19.9)	14,929(45.8)	1,229(3.8)	22,624(69.5)	1,995(6.1)	32,557(100.0)
2007년	14,184(28.8)	20,964(42.5)	9,225(18.7)	1,867(3.8)	32,056(65.0)	3,030(6.2)	49,270(100.0)

주: 2001년은 전공분야의 구분이 어려운 전문대학 재학중인 유학생 163명을 제외한 값임.

출처: 표 2의 자료와 동일함.

표 6.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형태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자비 유학	정부 초청	대학 초청	외국 정부파견	기타	합계
2000년	4,734(76.9)	208(3.4)	834(13.5)	38(0.6)	346(5.6)	6,160(100.0)
2001년	9,125(78.4)	269(2.3)	1,026(8.8)	226(1.9)	1,000(8.6)	11,646(100.0)
2003년	9,102(73.9)	358(2.9)	2,028(16.5)	85(0.7)	741(6.0)	12,314(100.0)
2004년	12,842(76.3)	391(2.3)	2,527(15.0)	198(1.2)	874(5.2)	16,832(100.0)
2005년	17,599(78.1)	388(1.7)	2,873(12.8)	309(1.4)	1,357(6.0)	22,526(100.0)
2006년	26,342(80.9)	614(1.9)	3,892(12.0)	465(1.4)	1,244(3.8)	32,557(100.0)
2007년	42,273(85.8)	581(1.2)	3,707(7.5)	511(1.0)	2,199(4.5)	49,270(100.0)

출처: 표 2의 자료와 동일함.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로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의 형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자비 유학생수가 42,273명으로 전체의 85.8%를, 뒤이어 대학초청 유학생수가 3,707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 유치구조가 일반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형태에서 점차 벗어나 나뉘대로 우리 고등교육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따른 교육시장에서의 위상 제고로 손수 유학비용을 부담하면서 유입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학이 수익을 창출하는 교육시장 구조로 점차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 4) 유학생의 지역별 분포패턴

끝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수가 4,394명으로 국내 전체 유학생수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수도권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2007년의 경우 수도권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수는 21,034명으로 국내 전체 유학생의 42.7%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수도권의 집중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

나, 지역별 학생 수용력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상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 지역별 대학정원의 분포와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집중현상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대학의 경우 학부 및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기 때문에, 학생 미달 혹은 미충원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방 소재 대학들보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다. 물론 지방에서도 대학의 국제화 노력 여하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별 분포패턴에 적잖은 차이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충청권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유학생 유치에 큰 관심을 쏟아 왔으며, 그동안의 성과는 이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인 유학생 비중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결론

한국은행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과 어학연수 비용으로 유출된 외화가 44억 6,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2007년에는 유학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대학생 총수는 약 2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학생 수출국 또는 송출국으로서의 이름을 떨

표 7.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도권	서울	4,128(66.6)	8,382(72.0)	6,803(55.2)	8,102(48.1)	9,061(40.2)	13,172(40.5)	17,647(35.8)
	인천	99(1.6)	139(1.2)	188(1.5)	233(1.4)	442(1.9)	537(1.6)	1,018(2.1)
	경기	167(2.7)	253(2.2)	272(2.2)	730(4.3)	1,098(4.9)	1,333(4.1)	2,369(4.8)
	소계	4,394(70.9)	8,774(3.4)	7,263(3.7)	9,065(5.7)	10,601(6.8)	15,042(46.2)	21,034(42.7)
강원권(강원)		86(1.4)	129(1.1)	280(2.3)	556(3.3)	792(3.5)	1,033(3.2)	2,064(4.2)
충청권	대전	231(3.7)	317(2.7)	355(2.9)	570(3.4)	712(3.2)	1,278(3.9)	2,769(5.6)
	충북	69(1.1)	132(1.1)	242(2.0)	345(2.0)	695(3.1)	1,602(4.9)	2,530(5.1)
	충남	487(7.9)	633(5.4)	1,106(9.0)	1,466(8.7)	1,937(8.6)	2,519(7.7)	3,235(6.6)
	소계	787(12.7)	1,082(9.2)	1,703(13.9)	2,381(14.1)	3,344(14.9)	5,399(16.5)	8,534(17.3)
전라권	광주	64(1.0)	115(1.0)	343(2.8)	433(2.6)	699(3.1)	1,040(3.2)	1,603(3.3)
	전북	156(2.5)	224(1.9)	348(2.8)	608(3.6)	1,067(4.7)	1,437(4.4)	2,381(4.8)
	전남	65(1.0)	176(1.5)	328(2.7)	544(3.2)	863(3.8)	848(2.6)	1,082(2.2)
	소계	285(4.5)	515(4.4)	1,019(8.3)	1,585(9.4)	2,629(11.6)	3,325(10.2)	5,066(10.3)
경상권	부산	263(4.3)	442(3.8)	895(7.3)	1,121(6.7)	1,634(7.3)	2,414(7.4)	3,524(7.2)
	대구	122(2.0)	110(1.0)	318(2.6)	593(3.5)	710(3.2)	932(2.9)	1,793(3.6)
	울산	13(0.2)	238(2.1)	44(0.4)	28(0.2)	115(0.5)	144(0.4)	184(0.4)
	경북	107(1.7)	212(1.8)	535(4.3)	1,102(6.6)	1,942(8.6)	2,814(8.6)	4,838(9.8)
	경남	93(1.5)	108(0.9)	240(1.9)	308(1.8)	655(2.9)	1,235(3.9)	1,795(3.6)
	소계	598(9.7)	1,110(9.6)	2,032(16.5)	3,152(18.8)	5,056(22.5)	7,539(23.2)	12,134(24.6)
제주권(제주)		46(0.8)	36(0.3)	17(0.1)	93(0.6)	104(0.5)	219(0.7)	438(0.9)
합계		6,196(100.0)	11,646(100.0)	12,314(100.0)	16,832(100.0)	22,526(100.0)	32,557(100.0)	49,270(100.0)

출처 : 표 2의 자료와 동일함.

쳐왔다.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에 큰 변화가 없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점차 늘어나면서 유학생의 유출·입에 있어서 비로소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하였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지난 2000년 이래 급증하여, 그 수가 2001년에 1만 명을 돌파한 뒤 2005년에 2만 명에 이르렀고 2006년에 3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2007년에 49,270명으로 5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아시아의 체류 유학생수로 보면, 일본과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유학생수를 받아들이는 유치국가가 되었다.

이처럼 급증하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국 목적으로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특히 한국 상품의 수출 증대)과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

활발한 해외 진출, 정보통신기술 등 관련 산업의 발달 등에 따른 한국 기업의 취업기회 확보를 위한 학 교육 또는 관련 학문분야 및 산업기술의 교육과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일고 있는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에 대한 관심의 증대도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또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과 대학(특히 지방대학)들의 신입생을 포함한 학생 확보를 둘러싼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가 급증하고 있다.<sup>3)</sup>

국내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일본과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등의 국가

들이 차례로 잇고 있다. 유학생 출신지역을 대륙별로 분석해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유럽 순으로 유학생수가 많은 편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는 대학 학부 재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학원 재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학연수 등 대학부설 연수기관 등록생 등이 많은 편이다. 또한 국내 유학생의 지리적 분포패턴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나, 수도권권의 편중현상이 여전히 현저한 실정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유학생을 해외로 내보내는 송출국이었지만, 이제 점점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찾는 유입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잘 교육된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우리나라를 자국에 알리는 가장 좋은 민간 외교관이 될 수 있으며,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동안 유학생의 급증에는 부분적으로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경쟁이라는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유학생들이 빈발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여기에 형식적인 절차로 유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시스템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생활환경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유학의 수익성이 강조되고, 경쟁력 있는 고급 전문 기술 인력의 중요한 흡수 수단으로서 유학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도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유학생 유치가 과연 얼마나 국가에 도움을 주며, 유학이 국내 고등교육체계에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그리고 또한 과연 외국 유학생들은 한국의 사회생활과 학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하는 점들을 살펴보고 깊이 성찰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노력과 경쟁이 국내의

부실한 교육과 열악한 생활환경과 연계될 경우, 향후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것이며, 장차 한국에 유학하려는 학생들도 격감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주

- 1)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학생 수출국으로서 오명 아닌 오명을 받아왔다. 광복 이전에는 일본으로의 유학이 주류를 이뤘으나, 그 후로 미국으로의 유학이 시작되었다.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겪은 뒤 미국의 전후 복구원조, 1960년대의 경제성장으로 유학생수가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정부의 해외유학 규제로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그렇지만 고도 경제성장과 자비 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신장된 1980년대에는 유학의 자유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유학생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權藤 与志夫, 1992: 8). 2007년 4월 1일 현재 217,95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1년 149,933명에서 2003년 159,903명, 2005년 192,254명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전체 유학생 중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이 아니라 어학연수의 단기 체류가 적잖은 비중(93,994명으로 전체의 43.1%)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단히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다. 2007년의 주요 유학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의 27.1%를 차지하고 뒤이어 중국(19.4%), 영국(8.4%), 호주(7.6%), 일본(8.7%), 캐나다(5.9%), 필리핀(6.6%), 뉴질랜드(4.0%), 기타(12.3%) 순으로, 미국 편중 현상이 뚜렷하나, 최근 들어 중국 체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 2) 본 통계는 법무부(출입국 관리사무소) 통계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전체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정규학위과정뿐만 아니라 대학 부설 한국어 연수기관 등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까지 포함하고 있다.
- 3) 2005년에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에 28개국 73개 도시에

서 3만 명 이상이 응시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로의 유입 유학생수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교육인적자원부도 2000년대에 들어서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종합방안인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를 2010년까지 5만 명 선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수치는 예상보다 앞당겨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4,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 (Study Korea' 프로젝트), 서울.
- 노종희 외, 2002,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국가별 지역별 대학 마케팅 전략, 교육인적자원부.
- 두경자, 2003, 내국인 및 재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공공가정 설계의 기초,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박응수 외, 2004, 전문대학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실천적 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박태호 외, 2001, 대학의 국제화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연구, 서울, 교육부.
- 안영진, 2008, "세계의 유학생 동향과 국제적 이동 특성," 지리학연구 42(2), 223-236.
- 안선민·장상옥·신경주, 2006,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계획을 위한 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3(1), 31-44.
- 이명재 외, 2006,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취업연계 장학프로그램 개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江淵一公, 1987, "アメリカにおける留學生問題研究の最近の動向 - 留學生流入のインパクトの問題を中心として," 廣島大學 大學教育研究センター 大學論集 第17集, 23-46.
- 江淵一公, 1989a, "留學生交流と大學の國際化の課題 - 第2回OECD/CERI高等教育國際センター報告にかえて," 大學論集 第19集, 53-74.
- 江淵一公(編), 1989b, 留學生受入れと大學の國際化: 全國大學における留學生受入れと教育に関する調査報告, 廣島大學 大學教育研究センター 高等教育研究叢書 1號.
- 江淵一公, 1990, "留學生受入れの政策と理念に関する一考察 - 主要國における政策動向の比較分析から," 廣島大學 大學教育研究センター 大學論集 第20集, 33-68.
- 江淵一公, 1991a, ヨーロッパにおける大學の國際化の潮流 - ERASMUS計劃の動向を中心として," 大學論集 第21集, 31-64.
- 江淵一公, 1991b, ヨーロッパにおける留學生受入れのシステムと現狀 - 獨・佛・英國現地調査報告, 高等教育研究叢書 13號.
- 江淵一公, 1992, "大學の國際化に関する研究 - 回顧と展望," 大學論集 第22集, 81-109.
- 權藤 与志夫(編), 1992, アジア8國における大學教授の日本留學觀, 高等教育研究叢書 16號.
- 文部科學省 高等教育局學生支援課, 2007, 我が國の留學生制度の概要 - 受け入れ及び派遣, 東京.
- 杉村美紀, 2007, "留學生の移動と共同體形成," 西川 潤・平野健一郎(編), 國際移動と社會變容. 東京, 岩波書店, 179-202.
- 阿部美哉, 1992, "アジアの海外留學," 廣島大學 大學教育研究センター(編), 高等教育改革の新段階, 高等教育研究叢書 20號, 87-92.
- 有本章・横山恵子(編), 2007, 外國留學生確保戰略と國境を超える高等教育機關の動向に関する研究 - 英國・香港事例, 高等教育研究叢書 89號.
- 黒田一雄, 2007, "東アジア共同體形成と國際教育交流" 西川 潤・平野健一郎(編), 國際移動と社會變容. 東京, 岩波書店, 227-247.
- Alberts, H. C. and Hazen H. D., 2005, "There are Always Two Voices ...' - International Students' Intentions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or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International Migration* 43(3), 131-152.
- Asmar, C., 2005, "Internationalising Students - Reassessing Diasporic and Local Student Difference,"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0(3), 291-309.
- Bailey, A. J., 2001, "Turning Transnational - Notes on the Theoris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7, 413-428.
- Baláž, V. and Williams, A. M., 2004, "Been There, Done That' - International Student Migration and Human

- Capital Transfers from the UK to Slovakia”, *Population, Space and Place* 10, 217-237.
- Blumenthal, P., Goodwin, C., Smith, A. and Teichler, U.(eds.), 1996, *Academic Mobility in a Changing World - Regional and Global Trends* (= Higher Education Policy Series 29), Jessica Kingsley.
- Budke, A., 2003, *Wahrnehmungs- und Handlungsmuster im Kulturkontakt - Studien über Austauschstudenten in wechselnden Kontexten*, Osnabrucker Studien zur Geographie 25, V & R Unipress GmbH.
- Chen, T.-M. and Barnett, G. A., 2000, “Research on International Student Flows from a Macro Perspective: A Network Analysis of 1985, 1989 and 1995,” *Higher Education* 39, 435-453.
- Hahn, K., 2004, *Die Internationalisierung der deutschen Hochschulen - Kontext, Kernprozesse, Konzepte und Strategi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Hazen H. D. and Alberts, H. C., 2006, “Visitors or Im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2, 201-216.
-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HEFCE), 2004,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 Issue Paper 2004/30), Bristol.
- Isserstedt, W. and Schnitzer, K., 2005, *Internationalisierung des Studiums - Ausländische Studierende in Deutschland, Deutsche Studierende im Ausland*,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onn/Berlin.
- King, R. and Ruiz-Gelices, E., 2003, “International Student Migration and the European ‘Year Abroad’: Effects on European Identity and Subsequent Migration Behaviour”,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9, 229-252.
- Murphy-Lejeune, E., 2002, *Student Mobility and Narrative in Europe: The New Strangers*, Routledge.
- OECD, 2004,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OECD Policy Brief* 2004/8, Paris.
- OECD, 2007b, *Education at a Glance 2007*, Paris.
- Pries, L., 1998, “Transnationale Soziale Räume,” in Beck, U.(Hrsg.), *Perspektiven der Weltgesellschaft*, Suhrkamp, 55-86.
- Teichler, U.(Hrsg.), 2007, *Die Internationalisierung der Hochschulen - Neue Herausforderungen und Strategien*, Campus.
- The Council for International Education(UKCOSA), 2004, *Broadening Our Horizons: International Students in UK Universities and Colleges*, London.
- The Council for International Education(UKCOSA), 2006, *New Horizons: International Students in UK Further Education Colleges*, London.
- UNESCO, 1998, *World Statistical Outlook on Higher Education: 1980-1995*, Paris.
- Wheeler, R., 1925, *The Foreign Student in America*, Association Press.
- 교신: 안영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Tel: 062-530-2686, E-mail: yjahn@chonnam.ac.kr
- Correspondence: Young-Jin Ahn,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ungbong-dong 300, Buk-gu, Kwangju 500-757, Tel: 82-62-630-2686, E-mail: yjahn@chonnam.ac.kr

최초투고일 2008년 7월 10일

최종접수일 2008년 8월 2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1, No.3, 2008(476~491)

##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 Theoretical Review and Statistical Analysis\***

Young-Jin Ahn\*\* · Byung-Doo Choi\*\*\*

**Abstract** :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are rapidly increasing. Korea is no exception. For a long time Korea has been one of the major countries in terms of students' outward migration at university-level, but recently the inward migration is also increasing so as to change the situation. First, this paper deals with theoretical aspects of international students' flows and reviews recent research achievements on those. Second, the paper describes the overall condi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using statistical data. Finally, this paper examines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Keywords** : Korea, International(foreign) students, International mobility, Internationalization of university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KRF-2007-324-B00024)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